

◆ "MBTI가 어떻게 되세요"...이제는 일상적 대화 주제·서로간 이해 첫 '관문'?

MBTI가 사회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
인기도, 화제성 등을 알 수 있는 기사
사람을 알아갈 때 mbti 활용

MBTI 관련 질문은 일상적인 대화 주제, 서로간 이해를 돕기 위해 던지는 '첫 질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5~19세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자아 정체성 및 MBTI 관련 인식 조사'에 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0.2%)이 MBTI 확산 현상을 체감하고 있었다.

MBTI 검사를 받아봤거나,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6.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47.3%)과 올해(78.3%)를 비교했을 때, MBTI 유형 관련 질문을 받은 경험은 31%나 증가했다. 또 다른 이에게 MBTI 유형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경우도 2021년(28.6%) 대비 올해(48%) 19.4% 늘었다.

◆ 응답자 57% "내 성격과 거의 일치...이 정도면 MBTI는 과학?"

MBTI 검사를 받아 본 이들은 대체로 결과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경험자 10명 중 7명(70.3%)은 그 결과가 실제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다는 경우가 많다는 데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또 알려진 성격 테스트 중에선 제일 잘 일치하는 테스트인 것 같단 평가도 절반을 넘는 57.8%에 달했다. 반면 검사 결과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좀 다른 것 같단 응답은 16.9%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0%)은 MBTI 결과로 타인을 좀 더 이해하게 됐다고 평가했고, 인간 관계에 좋은 팁이 되는 것 같다(49.8%)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20대 78.7%, 30대 73.7%, 40대 51.4%, 50대 48.4%로, 비교적 저연령층일수록 또래의 검사 결과를 궁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놓인 2030세대에서 이 검사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다.

이 같이 높은 신뢰도 등을 얻고 있지만, 일각에선 MBTI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응답자 83%는 'MBTI를 통해 상대방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6.9%는 '자신을 정해진 틀에 규정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 MBTI 검사, 왜 성행하는가

MBTI 검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자아정체성을 탐구하고자'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중복 응답) 10명 중 7명(65.9%)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바램이 컸다. 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72% 동의율),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대한 궁금증(68.7%)도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던지는 경우(50.3% 동의율)도 적잖았다.

반면 응답자 절반 가량(50.3%)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MBTI 검사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 성격과 특징을 알고자 하는 욕구(62.4% 동의율)도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실제 (중복 응답)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다'(66.1% 동의율), '궁합이 잘 맞는 성격이라면 상대에게 왠지 호감이 생길 것 같다'(65%)는 답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로부터 나왔다.

CNN방송, 'MBTI'와 사랑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 소개

입력 2022.07.23 17:53

신경철 기자

젊은 청년세대 중심으로 인간관계 형성에 MBTI 활용 현상 조명
사회적 불안감과 집단의 소속감이 MBTI 인기 요인으로 분석



Koreans have fallen in love with a (old) new way of dating

대한민국의 'MBTI' 활용 현상에 대해 소개한 CNN방송 기사 (사진=CNN
방송 홈페이지 캡처)

한국에서 mbti가 유행이라는 것이 유명함,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되기도 함.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4>

반면 MBTI가 상대에 대한 이해나 사랑과 연관될 때도 있다. 사랑이라는 건 섬세한 관찰을 동반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 존재를 쉽게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류하기 보다는 그 존재의 작은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애쓰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에 가까울 것이다. 당신이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는 방식, 손가락을 쥐는 형태, 인사할 때마다 드러내는 어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잘게 쪼개서 바라보고자 하는 게 사랑일 것이다.

그래서 MBTI 유형 가운데 I(내향형)인지 E(외향형)인지 물어보고는, 상대의 일상이나 행위에 점점 더 의미를 부여하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당신이 독서를 좋아하는 건 I여서가 아닐까? 당신이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홀로 다니기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건 역시 E이기 때문 아닐까? 그런 '질문하기'는 상대에 대한 '규정짓기' 이전에 상대의 디테일에 갖는 '관심'이다. 그렇게 타인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MBTI가 활용될 수도 있다.

MBTI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과학인지 아닌지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MBTI이건 혈액형이건 별자리건, 그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타인을 규정짓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가 혹은 타인에 대한 디테일 수집가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가, 나아가 그런 디테일들을 사랑하고 더 또렷이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F는 이해불가

조회수 241만회 • 3개월 전



딥 #MBTI #스케치코미디 T끼리 연애 할 때 옆자리 / 윤태용 - https://www.instagram.com/actor_y16/ 커플녀 / 김규남 ...

자막



T는 이해불가

조회수 158만회 • 2개월 전



딥 #MBTI #스케치코미디 F끼리 연애 할 때 커플남 / 윤태용 - https://www.instagram.com/actor_y16/ 커플녀 / 김규남 ...

자막

Youtube 인기 콘텐츠로 mbti 연애 소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

다른 mbti 별로 서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재미있게 그려내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 수 기록



INTP의 연애? 서툴지만 오히려 좋아 | INTP 연애

조회수 8천회 · 12일 전

마인드밍글

mbti #intp #인팁 #연애 INTP 유형의 연애 분석 by 마인드밍글 (mindmingle.kr) 인팁은 독특한 세계, 재밌는 입담으로 연예인 및 방송인 ...



ISFP 잘 맞는 사람 MBTI 특징 - 궁합표, OPEN AI 분석 (SUB)

조회수 3.6만회 · 5개월 전

K 연애

ISFP 잇프피 유형이 잘 맞는 유형 궁합 분석 입니다 MBTI 궁합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인공지능 CHATGBT 는 어떻게 분석 하는지 ...

자막



MBTI와 연애의 심리학 (ft. 콩깍지의 원리)

조회수 8만회 · 1개월 전

길 인간학연구소

MBTI와 융 심리학으로 설명하는 연애의 심리 (그림 instagram twitter @_lamang) #연애 #mbti.

Mbti 연애 콘텐츠가 만연한 것,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람들이 연애에 임할 때 mbti 관련 콘텐츠를 참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MBTI와 연애 심리학 (ft. 사랑에 빠지면 알게 되는 것)

조회수 7.5만회 • 1개월 전

김영민 길 인간학연구소

MBTI와 융 심리학으로 설명하는 연애의 심리 (그림 instagram twitter @_lamang) #연애 #mbti.



MBTI 유형별 연애스타일

조회수 38만회 • 6개월 전

MBTI 일상툰

구독과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주 4회(월, 수, 금, 토) 오후 6시에 ...

자막



Mbti별 연애스타일

조회수 179만회 • 1년 전

때절룩TAKE A LOOK

mbti #연애 #플레이리스트 #싱잉랩 #감성힙합 #사랑 #설레는 #연애스타일 #enfp #infp #entp #엔프피.



♥ 경험담으로 보는 F와 T의 연애 차이 | 또BTI, 연애설, 공감능력

조회수 100만회 • 4개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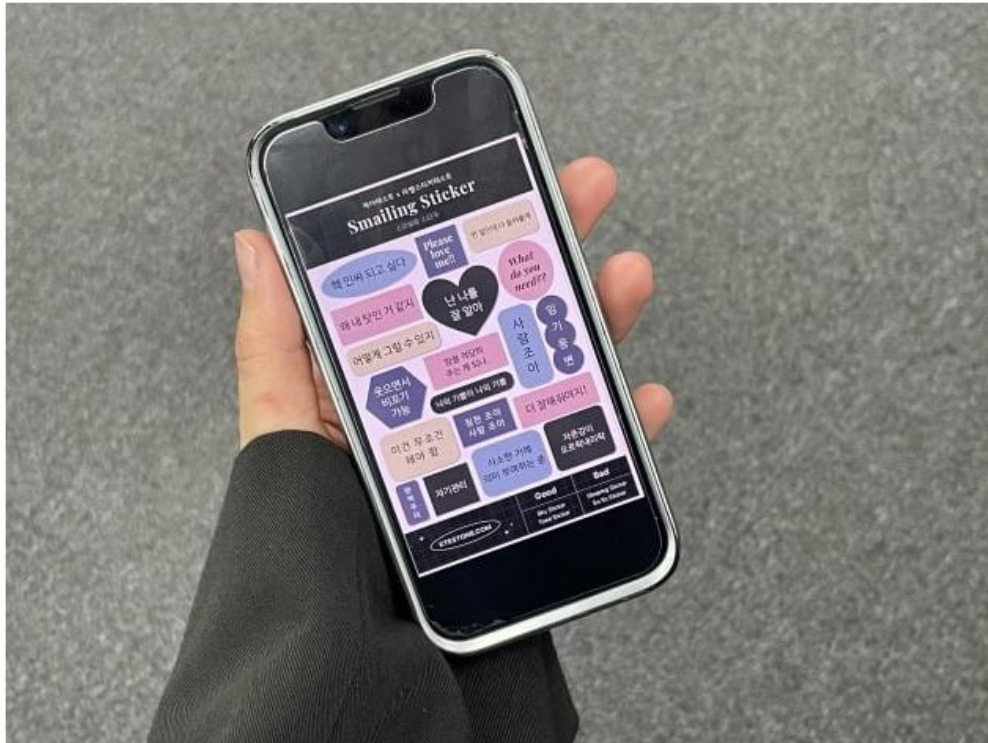
오늘의 주우재

안녕하세요 대주주님을 주우재입니다 저 공감 잘 합니다.. ※반박 시 빠짐 인스타 <https://bit.ly/3rrs0hN> 네이버 카페 ...

홈 > 한경BUSINESS

다큐에 기업 투자 보고서까지... 식을 줄 모르는 MBTI 인기 [김민주의 MZ 트렌드]

입력 2023.04.21 09:50 | 수정 2023.04.21 09:50



라벨 스티커 테스트 결과 이미지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02598b>

교제 시 10명 중 8명이 따진다는 MBTI...얼마나 맞을까?

10~20대 373명 설문...84% "친구 사귀는 때 선호하는 MBTI..."
'NF'와 'ST'는 상극 관계...MBTI 대유행에 채용·마케팅에도...
"MBTI 인간관계 시작 단계서 효율적...채용 등에서 활용은 ...

등록 2023-03-30 오후 5:07:57
수정 2023-03-30 오후 6:22:25

가 가



이연호 기자

N 기자구독



지금 열독 중



국산 정품 입을
란트 개당 49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MBTI 중 가운데 두 개가 'NF'인 분들만 보내 주세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2022 송파 교육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MBTI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MBTI가 ENFJ인 사람이다. '외향'·'직관'·'감성'·'계획'이 그를 구성하는 대분류의 키워드다. 그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상대의 MBTI부터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상대의 MBTI가 'ST'라면 마음속에서 확실한 선을 긋는다. 반대로 'NF'인 사람에겐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또 자신과 친한 사람들의 MBTI를 물어보니 백이면 백 모두 'NF'이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은 거의 'ST'이다보니 A씨는 'MBTI는 과학'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그것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인터넷상에 많이 퍼진 16가지 유형 간 MBTI 궁합 표를 봐도 ENFJ처럼 'NF'인 사람들은 'ST'인 사람들과는 '최악의 관계'다. 형지엘리트의 설문 조사에서 감정형(F) 응답자 중 사고형(T)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7%에 그친 것과 같은 맥락이다.

MBTI의 유형별 특징에 따르면, N은 이상적이고 공상이 많은 성격이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성격으로 외부의 세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F는 인간관계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감성적이고 공감력이 좋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감정이 타인들에 의해 많이 휘둘리는 타입이다. 반면 S는 현실적이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성격으로 외부의 세계를 경험적으로 파악한다. 오감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들은 쉽게 믿지 않는다. T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로, 자신의 감정이 외부에 의해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타입이다.

'NF' 유형들은 'ST' 유형들에 대해 '기가 세고 상처를 잘 주며 공감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ST 유형들은 NF 유형들에 대해 '엉뚱하고 답답하며 걸핏하면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두 부류는 서로 일종의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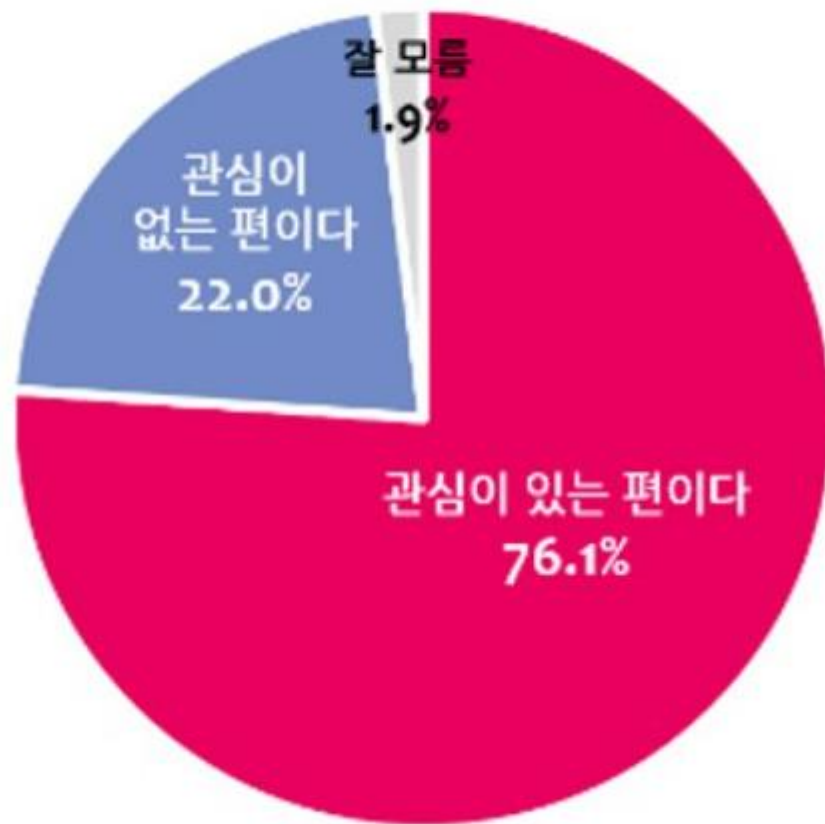
전체 63.3% “주변 친구와 지인의 '진짜' 성격이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싶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태도도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주변 친구와 지인의 '진짜' 성격이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성격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과 성격의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7명 이상(72%)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친구의 숫자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할(최소 필요 친구 숫자 3~4명 42.8%, 5~6명 19%, 1~2명 13.7% 순) 정도로 인간관계 확장에 대한 욕구가 크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성격'이 잘 맞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만은 크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 삼아 다양한 성격 테스트를 해보거나, 궁합을 보는 것으로, 대다수(71.6%)는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성격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왠지 호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격 측면에서 궁합이 잘 안 맞는 사람을 알게 되면 최악의 인간관계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42.5%), 최악의 궁합이라는 정보를 들으면 왠지 그 사람을 멀리 하게 될 것 같다(30.1%)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

전체 76.1%가 MBTI 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MBTI 성격 검사'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경험자 71.2% “친구 및 지인의 검사 결과가 궁금해졌다”

58.2%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MBTI 성격 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대체로 검사 결과에 만족해하고,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었다. 먼저 MBTI 검사 경험자 10명 중 7명(72.2%)이 실제 자신의 성격과 맞는 경우가 많아 깜짝 놀랐던 경험을 들려줬으며, 지금까지 해본 성격테스트 중에서 제일 잘 맞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경험자도 60.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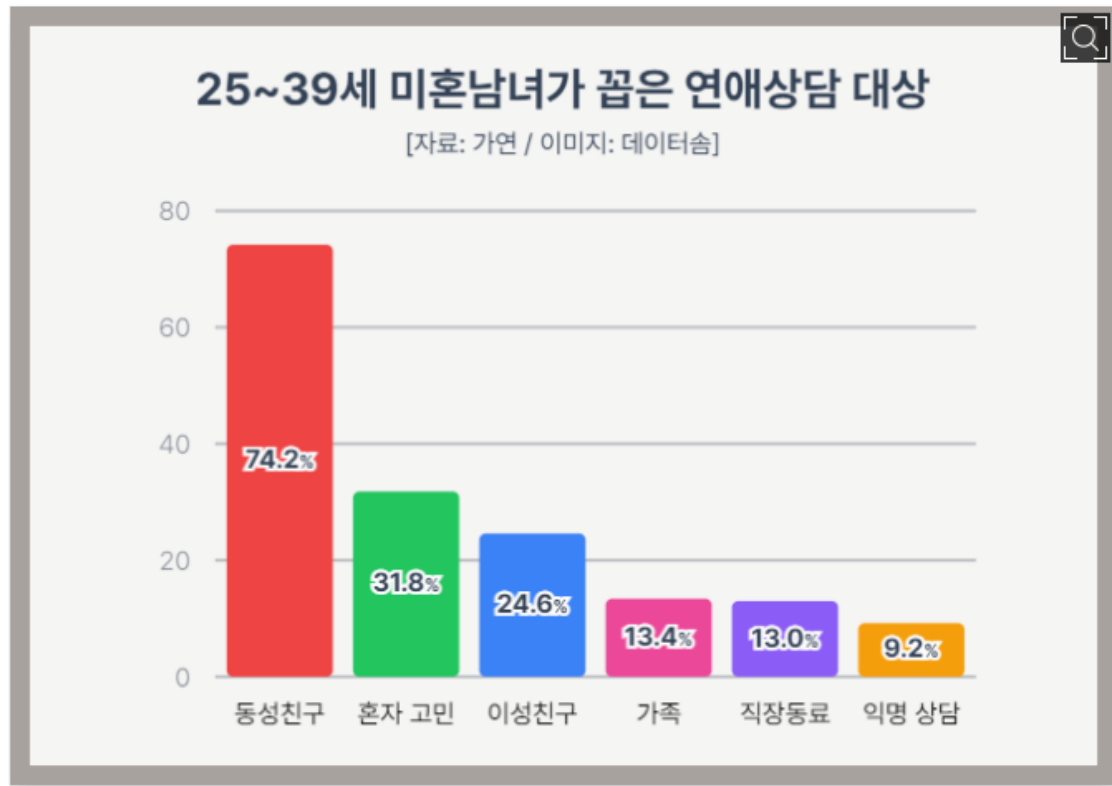
반면 특별히 ‘나’를 잘 맞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고(26.3%), 자신이 아는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았다(19.9%)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그만큼 MBTI 검사에 의해 분류되는 ‘성격 유형’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MBTI 검사 결과에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검사 경험자의 69%가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진 계기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MBTI 검사는 자아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졌다.

MBTI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검사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부분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친구 및 지인의 검사 결과가 궁금해졌고(71.2%), 다른 사람에게 한 번 해보라고 권해본 적이 있다(63.3%)고 밝힌 것이다. 아무래도 친구 및 지인의 성격 유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59.8%)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용자 10명 중 6명(58.2%)이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MBTI 결과가 인간관계에 좋은 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45.9%)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혼남녀 연애상담 1위는 '동성친구'

👤 곽현아 기자 | ⌚ 승인 2022.10.18 16:22 | 💬 댓글 0

| 혼자서 고민·이성친구·가족·직장동료·익명상담 순



미혼남녀들은 연애상담을 하는 대상으로 동성친구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숨]이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25~39세 미혼남녀 500명(남성 250명,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애상담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연애 상담을 할 때 주로 누구와 하는지'라는 물음에 '동성친구(74.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로지 혼자 고민한다(31.8%)', '이성친구(24.6%)', '가족(13.4%)', '직장동료(13%)', '온라인 익명 상담(9.2%)'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성친구와 상담한다고 밝힌 남성은 전체 남성의 34.8%, 여성은 14.4%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가연 관계자는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상대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여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라고 해석했다.

'자신의 연애 경험담 및 사연을 온라인상에 공유한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종종 있다'는 23%, '자주 있다'는 4.4%에 불과했다.

'자신의 연애 경험담 및 사연을 온라인상에 공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75.9%)',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67.9%)',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61.3%)'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온라인의 익명 보장을 중요하게 여긴 응답자는 남성 54.8%, 여성 82.8%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전문 상담사보다는 친구와 비슷한 대상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컨셉

같은 성격유형을 가진 다수의 사람 존재, 몇 명의 사람만 입장 가능한 채팅 방에서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온라인 연애상담소 20~30대 '와글'

입력 : 2012.07.26 21:51 | 수정 : 2012.07.26 21:55 류인하 기자

온라인으로 연애상담을 받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어가는 중,
유료 서비스는 진입 장벽이 높음

| 사랑·이별 후 대처법 알려줘

대학원생 송모씨(27·여)는 스페인어 스터디모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2년간 사귀다 최근 헤어졌다. 송씨는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 소개팅도 하고, 동호회 모임도 나가봤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친구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점점 자신의 하소연을 지겨워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송씨는 결국 온라인 연애상담소를 찾았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연애과정 및 이별 후에 겪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 온라인 상담소를 찾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연애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애문제를 상담받으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유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나모씨(24)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담소에 물어보고, 지적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유료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서는 뜨끔했다" "오프라인 집단상담도 해보고 정신과도 다녀봤지만 이곳에서 받았던 상담이 제일 나았다"는 등 다양한 글을 남겼다.

연애상담도 상담인지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연애'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3회 컨설팅 비용으로 90만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연구소'는 상담요청글의 답변기간에 따라 1회에 4만5000원(일주일 이내)~12만원(24시간 이내)을 청구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207262151445>

결혼정보회사 듀오 "인터넷 연애 상담? 공개 장소 부담 돼"

김윤정 기자 | 승인 2018.08.15 07:00 | 댓글 0



미혼남녀가 온라인 상으로 연애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미혼남녀 총 325명(남 160명, 여 16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연애 고민 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에 연애 고민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남녀의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대다수가 '공개적인 장소에 글을 올리기 부담스러워서'(81.3%)라고 답했지만, 여성은 35.2%에 그쳤다. 여성이 연애 고민 글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에 연애 고민을 올린 경험이 있는 2030은 41.2%였다. 인터넷에 연애 고민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수에게 객관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53.8%) 혹은 '익명으로 고민을 올릴 수 있어서'(36.3%)였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10명 중 3명 “연애고민 온라인 공유”

✎ 김유진 기자 | ⌚ 입력 2022.10.25 13:50 | 💬 댓글 0



[자료 : 가연결혼정보회]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MZ세대 미혼남녀 500명(25세~39세, 남녀 각 250명)에게 '연애 상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의견을 알아봤다. (9월 28일 오픈서베이 시행,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pm 4.4\%$ P)

먼저 "자신의 연애 경험담 및 사연을 온라인상에 공유한 경험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2.6%로 많았다. 반면 '종종 있다'는 23%, '자주 있다'는 4.4%에 불과했다.

"자신의 연애 경험담 및 사연을 온라인상에 공유한 이유"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75.9%)',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67.9%)',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61.3%)',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서(8.8%)', '기타(0.7%)' 순으로 답변했다. (중복 응답 가능) 특히 온라인의 익명 보장을 중요하게 여긴 응답자는 남성 54.8%, 여성 82.8%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애 상담을 할 때, 주로 누구와 하는지"에는 '동성친구(74.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오로지 혼자 고민한다(31.8%)', '이성친구(24.6%)', '가족(13.4%)', '직장동료(13%)', '온라인 익명 상담(9.2%)', '기타(0.2%)' 순으로 드러났다. (1, 2순위까지 응답)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상담을 털어놓는 대상은 동성친구가 대다수였으나, 혼자 고민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라며 "연애 관련 고민거리는 누구나 흔히 가질 수 있으나, 혼자서만 답답해하고 생각하다 결론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 "전문 커플매니저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많은 이들의 연애 고민과 이성·결혼관을 상담 및 조언하고 있다. 현재 고민도 해결하고 미래 이성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남녀들의 의견을 묻는 러브리서치 및 각종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며 성혼회원 후기, 가입비용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 “도대체 와이프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난 걸까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상수(52·가명) 씨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부부 상담을 한다. 이날도 아내와 다툰 후 관련 고민을 지식IN에 올렸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기혼자부터 부부심리상담가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의 답변이 달렸다. 박 씨는 “지식IN이 일종의 부부 고민 상담 역할을 한다”며 “이용자가 많아서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IN(지식인)’ 서비스가 전 연령대의 ‘연애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1020세대뿐 아니라 30~50대 1위 관심 테마도 연애·결혼·부부다. 올해로 20주년 맞은 ‘지식인’은 누적 8억 건의 질문답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질문을 넘어 전문 분야까지 확장하며 전국민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50대도 온라인 연애상담을 이용함
연애 상담은 사업성이 높은 서비스

8일 네이버 지식인에 따르면, 각 연령대별 궁금증 1위(8월 기준)는 연애·결혼이었다. 20대, 30대, 50대 남성, 20~50대 여성이 연애, 결혼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지식인이 일종의 연애상담 핫플레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추후 만나고 싶은 연인의 특징으로는 남녀 모두 '성격이 좋은 연인'(남 68.0%, 여 78.0%)을 꼽았다. 이외에 '대화방식이 잘 맞는 연인'(남 66.7%, 여 77.3%), '가치관이 잘 맞는 연인'(남 65.3%, 여 77.3%), '취미 및 취향이 잘 맞는 연인'(남 48.0%, 여 62.0%), '흡연을 하지 않는 연인'(남 42.0%, 여 58.7%), '표현을 많이 하는 연인'(남 48.0%, 여 51.3%), '가정이 화목한 연인'(남 46.7%, 여 50.0%), '잘 이끌어주는 연인'(남 38.0%, 여 5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추후 만나고 싶지 않은 연인의 특징으로 남성은 '성격이 안 좋은 연인'(68.0%), 여성은 '음주 및 유흥을 과도하게 즐기는 연인'(87.3%)을 각각 1위로 선택했다. 그 외의 답변으로 남성은 '음주 및 유흥을 과도하게 즐기는 연인'(66.0%),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61.3%), '상대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인'(60.7%), '흡연을 하는 연인'(54.7%), '가치관이 안 맞는 연인'(52.7%), '자존감이 낮은 연인'(42.0%), '가정문제가 있는 연인'(38.7%)을 꼽은 반면, 여성은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82.0%), '성격이 안 좋은 연인'(79.3%), '상대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인'(74.0%), '가정문제가 있는 연인'(66.0%), '가치관이 안 맞는 연인'(62.7%), '흡연을 하는 연인'(58.0%), '자존감이 낮은 연인'(58.0%) 등을 들었다.

과거 연애 상대와 가장 많이 다투었던 문제는 남녀 모두 '가치관 및 성향 차이'(남 49.5%, 여 56.3%)였다. 그 외에는 '대화방식'(남 37.6%, 여 31.1%), '연락 빈도'(남 22.9%, 여 26.9%), '애정 표현'(남 15.6%, 여 15.1%), '이성친구'(남 17.4%, 여 12.6%), '경제관념'(남 10.1%, 여 10.1%) 등 많은 이유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 연애 상대와의 이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서로와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남 18.3%, 여 19.3%), '성격이 맞지 않아서'(남 24.8%, 여 10.9%),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남 12.8%, 여 21.8%), '대화방식이 달라서'(남 11.0%, 여 11.8%), '서로 자존심을 부려서'(남 2.8%, 여 7.6%), '없음'(남 6.4%, 여 2.5%), '스킨십 문제가 있어서'(남 4.6%, 여 2.5%) 등이었다.

성격차이로 이별하는 경우가 많음 -> MBTI로 타 유형(성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